신기술제품 인증제도, 상생협력모델 조성한다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, 「201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」 개최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신기술지원과(02-509-7287)

■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「2010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」가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,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등 내외귀빈과 신기술제품 인증기업,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되었다.

⊙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제품에 대해 인증을 주고 인증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7년부터 매년 동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.

■ 이날 행사에서는 신기술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간(경기도청, 한국도로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전KDN(주) 6개 기관) 구매촉진 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

⊙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은 우수한 성능과 품질의 신기술 제품을 구매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.

⊙ 실제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는 중소기업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.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을 전년대비 66%가 증가한 3,434억원 구매하였고 이에 힘입어 인증신제품(NEP)의 매출은 29% 증가하였고 수출도 3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⊙ 또한, 2007년 이후 국내 제조업체의 고용률이 평균 7.4% 감소한 가운데도 신제품 인증기업은 매년 7% 이상의 꾸준한 상승을 보였다.

■ 그 밖에도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기여한 유공자(기업)와 신기술제품 판로확대에 기여한 유공자(기관)에 대하여 훈 · 포장 등을 수여했다.

⊙ 세계최초이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해 '작물보호제 자기발포확산형 제형(직접살포정제)' 상용화에 성공한 (주)경농의 이병만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,

⊙ 선진 5~6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'건축/토목/지반/기계 구조물 해석 및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'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(주)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.

⊙ 또한, 자동차 핵심기술인 '엔진, 변속기' 등의 독자기술을 개발해 세계 5위의 글로벌 톱 브랜드로 성장시킨 (주)현대자동차(양승석 대표)가 유공기업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판로지원 단체부문에서는 경기도청 등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.

■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중소 ·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매우 중요하며, 공공기관은 신기술 제품을 적극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고,

⊙ 오늘 MOU를 계기로 인증제도와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시키고 실용화에 성공한 신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구매 확대 등 다양한 판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■ 또한,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를 계기로 기술개발에서 실용화, 공공구매,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켜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또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.

대규모 풍력설비공장, 국내최초 메가요트 생산기지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세워져

- 군산자유무역지역 100% 입주완료, 전북권내 수출핵심기지 될 것 -
- 연평도 도발 사건에도 외국인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 -

문의 | 지식경제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(063-464-0710)

■ 우리나라 풍력산업을 선도해 나갈 '대규모 풍력설비 공장'과 국내 최초로 75ft급 이상의 '대형 메가요트 생산기지'가 군산자유무역지역에 건설된다.

⊙ 지식경제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(원장 손경윤)은 12월 2일(목) 군산자유무역지역에서 독일, 캐나다, 네덜란드 등에서 투자하는 3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MOU를 체결하는 자리를 갖고

⊙ 이들 3개 기업들이 2013년까지 3년 동안 총 1,345억원을 투자하여 년간 5,776억원 규모의 생산능력과 3.7억불의 수출능력을 갖추게 되며, 약 32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.

【 투자 MOU 체결 】

■ 일시 · 장소 : '10.12.2(목) 10:30,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

■ 참석 : 총 6명

- 기 업(3명) : (주)이코너지, (주)JY요트, (주)칼라팔트아시아 대표
- 지자체(2명) : 김완주 전북도지사, 문동신 군산시장
- 지경부(1명) : 손경윤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

⊙ 특히,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별 외국인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서 주목 받고 있다.

대규모 풍력설비공장을 건설하게 될 (주)이코너지는

⊙ 기어박스의 세계적 생산능력을 보유한 독일의 유수기업들로부터 기술 및 투자협력을 받아 '14년까지 2MW급 부터 5MW급 대형 풍력설비까지 공급이 가능한 생산거점을 우리나라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

⊙ '11년 상반기부터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풍력발전시스템('12), 기어박스 · ('13) 생산공장을 건축하고, 초기년도 조립생산과정을 거쳐 '13년부터 자체 생산에 들어가 유럽 및 동남아 등 세계 풍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.

⊙ 또한, 동 사는 이미 상용화된 2MW급 풍력발전기를 비롯하여 '14년까지 5MW급 대형 풍력설비를 순차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으로써, 3~5MW급 풍력발전기가 아직 실증 또는 개발단계인 국내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, (주)이코너지의 국내투자는 우리나라 기술력 향상은 물론 풍력산업 구도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

■ 초대형 메가요트를 생산계획인 (주)JY요트의 경우

⊙ 요트제작 업체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11월 초 미국과 러시아에서 75ft 규모의 알루미늄 및 스틸형 레저용 메가요트 4척(약 120억원)을 수주하고, '11년부터 군산자유무역지역에서 본격 제작에 착수 하겠다는 계획으로

* 현재 국내에서는 푸른중공업, 한남조선 등에서 소형요트만 일부 생산, 메가요트급은 금번이 최초

⊙ 동 사의 금번 초대형 메가요트 수주 성과는 세계적인 조선강국이면서도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요트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음은 물론, 향후 해양레저산업의 저변확대에 발맞춰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선두주자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

■ 이로써, 군산자유무역지역은 2005년 10월 완공이후 5년만에 100% 입주가 완료되었으며, 명실공히 전북권내 대표적인 수출전진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.

⊙ 현재 군산자유무역지역에는 15개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 총 29개사가 입주해 있으며

⊙ 향후 입주기업들이 정상 가동되는 '14년에는 생산 2조 4천억원, 수출 15억$로 전북권내 수출액의 15%이상을 점유하는 대표 수출지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

■ 손경윤 지식경제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

⊙ 2009년 2월 부임시 50%에 불과했던 입주율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100%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

- 수출주력기업 및 대규모 외투기업 등 자유무역지역 유치에 적합한 타깃기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
- 무상 임대료 · 관세특례 등 기업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산업입지 임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한편
- 입주후에도 끝까지 기업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진실성을 기업들이 받아들여 준 결과라고 말하면서

※ 우리원에서는 그동안 해외 현지출장(13회), 박람회 · 업종단체 방문(100여회), 매체광고(20여회), 홍보DM 발송(1,000건 이상) 등 전사적 투자유치 전개

⊙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가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입주기업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제품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R&D 과제 발굴 등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 수출선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입주기업 내실화에 전력투구할 계획임을 밝힘

한·미 스마트그리드 표준협력 강화

- 기표원,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인 NIST, IEEE와 협력체결 -

문의 |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(02-509-7295)

■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그리드(지능형전력망) 구축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표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

【 스마트그리드 ? 】

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(IT)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, 전력시장 및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이 최적화가 되도록 하는 차세대 전력망

⊙ 작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시 한미산업협력 양해각서를 근거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허경)에서는 지난 10월 스마트그리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(NIST) 및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(IEEE)와 다각적인 기술표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양국간 긴밀한 스마트그리드 표준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.

* NIST(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) : 국립표준기술원

* IEEE(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) :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

〈 기술표준 협력방안〉

① 기술표준원과 NIST 간 "한미 스마트그리드 협력 포럼" 구성

② 미국 'SGIP'와 한국 'SG표준화포럼' 간 별도 협의체 구성 검토

* 미국 SGIP(Smart Grid Interoperability Panel) :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패널

* 한국 SG표준화포럼 :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표준 협의체(붙임)

③ 양국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민 · 관 전문가의 상호방문

④ 공동 워크샵 · 세미나 공동 개최 및 국제 표준화 추진시 상호협력

■ 금번 미국과 협력으로 스마트그리드 분야의

⊙ 국제표준화에 공동 대처하는 등 전략적 윈-윈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국제위상을 제고

⊙ 최대 스마트그리드 시장인 미국에 우리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

⊙ 선진기술이 국내에 조기 실용화되어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.

⊙ 또한 NIST의 초청에 따라 미국 SGIP 총회(11.30~12.3, 시카고)에서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현황을 발표하는 등 양국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.

표준원은 이번 한미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 IT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 표준협력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기 구
독일 등 유럽 및 중국,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도 표준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,
대상 국가별 중점 추진분야 및 주요 협력가능 분야 선정을 통한 맞춤형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
향후 스마트그리드 분야 세계시장 진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.

"충북 오창, 건축자재 산업의 메카로 등장"

- 건축자재의 에너지효율, 화재안전 시험을 위한 종합건축환경시험장 준공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(02-2110-5639)

■ 지식경제부(장관 : 최경환)는 11.3(수)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 및 LG하우시스, KCC 등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축환경시험장 준공식(주최 :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오태식 원장)을 개최함

【 종합건축환경시험장 준공식 개요 】

- 일시 및 장소 : '10.11.3(수) 11:00~12:00 / 오창 과학산업단지
- 주요 참석자 : 변재일 국회의원,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, 오태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, 한명호 LG하우시스 사장, 이춘만 이건산업 대표이사 등

⊙ 동 시험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친환경 및 고효율 건축자재의 종합적인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90억원(국비 50억원)이 투입되었으며,

⊙ 연면적 3,636m²의 규모로 건축환경시험, 화재안전 및 방근성능 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건축자재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음

* 방근성능 : 녹화용 식물뿌리가 옥상방수재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성능

■ 그 동안 국내 관련업계는 해외 선진업체에 비해 건축자재 평가 장비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효율 · 친환경 성능을 가진 첨단 건축자재 개발과 품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

⊙ 그러나, 금번 종합건축환경시험장 준공으로 관련 산업계에 건축자재의 종합적인 성능평가 및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,

⊙ 또한, 동 시험장이 LG 하우시스, 한화 L&C 등 국내 주요 건축자재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위치,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오창이 명실상부한 국내 건축자재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

■ 지식경제부는 동 시험장이 종합적인 건축자재 시험평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 친환경·고효율 건축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

⊙ 기술력 향상에 의한 건축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

* 국내 건축자재 시장규모('09년 기준) : 4조원, 기업수 : 1,100여개

■ 한편,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우태희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은

⊙ 동 시험장을 통해 잠재력이 확인된 건축자재 산업을 적극 발굴, 국내시장 진입촉진 및 수출전략 산업*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

* (예) 진공 단열유리, WPC(인공합성목재), 친환경 마감재 및 단열재 등

⊙ 동 시험장이 지역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질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당부하였음

한-터키 원전협력 정부간협약 고위급협상 개최

- 10. 28(목)~29(금), 터키 앙카라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(02-2110-3962)

■ 지식경제부(장관 : 최경환)는 터키와의 원전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약(IGA, Intergovernmental Agreement) 고위급협상에 착수하였다고 밝힘

⊙ '10.10.28(목)~29(금) 양일간 터키 에너지부 청사(앙카라 소재)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상회의를 개최하였음

⊙ 우리측에서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, 터키측에서는 메틴 킬지(Metin Kilci) 에너지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

■ 그간 양국은 사업자간(한전-터키 국영발전회사) 공동선언 체결('10.3.10) 이후, 공동 TF를 구성하여 터키 시놉원전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며

⊙ 지난 6.15일 터키 대통령 방한시 정부간 원전사업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인 협력의지를 밝힌 바 있음

■ 양측은 지난 9월말 정부간 협약(IGA) 협상안 초안을 교환하고 '10.6(수)부터 터키 에너지부(앙카라 소재)에서 국장급을 대표(우리측 수석대표 문재도 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)로 하는 실무협상회의에 착수하였음

⊙ 현재 우리측 대표단이 앙카라에 상주하면서 실무협상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,

⊙ 지난 10.14(목)에는 지경부 장관이 터키를 방문, 터키 에너지부 장관과 회의를 갖고 양국의 협력의지를 재차 확인한 바 있음

■ 동 정부간 협약(IGA)은 양국 정부간 시놉 원전사업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(위치, 규모, 사업방식 등)과 양국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을 예정임

기업이 직접 교육하고, 바로 채용하는 에너지인력양성, 신재생, 원자력 등 인력수요 급증 분야부터 본격 착수

- 사업개편 후 첫 선정, '10년 28개 신규과제에 315개 기업 참여 -
- 향후 5년간 2,500여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기대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(02-2110-5475)

■ 지식경제부(장관 최경환)는 에너지산업 新성장동력화에 필수적인 우수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'10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재생, 원자력 등 분야 28개 과제(25개 대학)를 선정 · 확정하고 총 71억을 지원키로 함

⊙ 사업별로는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(학부생 대상) 12개,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(석박사 과정 대상) 16개 과제이며,

⊙ 분야별로는 신재생 11개(기초4, 고급7), 전력 9개(기초4, 고급5), 원자력 6개(기초4, 고급2), 에너지자원 2개(고급2) 과제임

■ 이번에 선정한 신규사업은 에너지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출산업화 · 신성장동력화로 대표되는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수립한 "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"에 따라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, 産學間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기업이 직접 교육하는 수요중심 인력양성을 지향하고 있음

⊙ 특히 한국수력원자력, 포스코, 두산중공업, 삼성엔지니어링 등 정규직 및 인턴 채용의사를 표시한 총 315개 국내 유수의 대 · 중 · 소 기업이 참여하여 産學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임

■ 이번 사업의 특징은 과거의 학과 · 대학원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, 수요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트랙을 운영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함

⊙ 기존 학사행정과 연계하여 사업별로 적절한 수의 기업맞춤형 과목들을 인력양성 목적에 부합토록 트랙화하는 것으로서

⊙ 대학, 기업이 각각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과목, 교육형태, 교육수준 등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최적 인력양성 트랙을 구성하여,

⊙ 종래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아온 인력양성사업의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였음

■ 특히 학부과정 기초 트랙의 경우,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기업과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등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, 실무역량 강화, 융복합형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었으며,

⊙ 올해 신규사업 중 지방 지원 비율은 83.3%(12개 과제 중 10개)로 지역 산업 및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 대학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당지역 내 인력 수급체계 구축이 기대됨

※ 지역산업 고용연계 대학 : 구미1대학, 충북대, 군산대, 안동대, 동신대, 청주대, 울산대, 부경대, 동국대(경주), 조선대

■ 한편 석 · 박사대상 고급 트랙의 경우, 학술적인 능력과 실무능력을 함께 배양하도록 연구 · 개발을 통한 인력양성(R&HRD)으로 정책연계성을 강화하고 융복합형 R&D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였으며,

⊙ 실무 적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학과간 융합, 적극적인 글로벌 연계 등으로 융복합형, 글로벌형 인력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

※ 다양한 학과간 융합 사례: 연세대(신재생 융합), 숭실대(전력), 한양대(태양광) 등

※ 글로벌 연계 사례: 성균관대(그린카), 한양대(이차전지), 연세대(수퍼그리드), 서울대(풍력), 영남대(태양광), 전북대(태양광), 고려대(태양광) 등

■ 올해 사업은 "그린에너지산업 인력수급 조사분석('09.7)" 등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신재생, 원자력 등 수요급증 분야에 집중 지원하였음

⊙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, 태양광 등 수요 급증 분야의 소재 · 소자, 공정, 설계, 시공, 장비 등 다양한 맞춤형 트랙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기술 전주기적으로 양성될 계획임

※ 신재생에너지 기초 · 고급 트랙 현황

구분	태양광	풍력	신재생 융복합
기초	동신대, 청주대, 구미1대학	-	울산대
고급	영남대, 전북대, 한양대, 고려대, 경원대	서울대	연세대

⊙ 또한, UAE 원전수주 이후 인력수요가 급증한 원자력 분야의 경우, 기업과 연계를 강화한 실무형 기초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 대학체계로는 인력양성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했던 원전용 부품 · 소재 및 구조물 전문 R&D인력이 양성될 계획임

※ 원자력 기초 · 고급 트랙 현황 : (기초) 부경대, 경희대, 동국대, 조선대
(고급) 부산대-원전용 부품 · 소재, 세종대-원전 구조물

⊙ 최근 투자가 활발한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 분야의 경우, 지역산업 밀착형으로 전력 변환 · 설비 분야 실무형 기초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스마트그리드 관련 계통 · 기기 전문 R&D인력이 양성될 계획임

※ 전력 기초 · 고급 트랙 현황 : (기초) 두원공대, 군산대, 충북대, 안동대
(고급) 부산대, 중앙대, 연세대, 숭실대, 충남대

⊙ 이외에도 최근 글로벌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린카 및 2차전지 분야에서도 기업밀착형으로 트랙을 구성하고, 국제 공동연구, 해외 현장실습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R&D인력이 양성될 계획임

※ 그린카, 이차전지 트랙 현황 : (고급) 성균관대, 한양대

■ 지경부가 사업체계 개편 후 첫 사업으로, 지난 9월 '10년 신규과제 공모 결과, 에너지자원, 전력, 신재생, 원자력 분야 등에서 총 98개 과제가 접수되어 최종 28개 과제를 선정, 평균 3.5:1의 경쟁률을 기록함

⊙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KETEP)이 공모 · 접수한 과제에 대해 지난 11월 8일부터 5일간 '신규과제 평가위원회'를 운영 · 심의하였으며 지경부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확정하였음

⊙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4~5년간 매년 3~5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한편, 사업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1단계(2년) 사업실적 평가후 최하순위 과제(10% 이상)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

※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: 지원기간 4년(2+2, 2단계), 연간 3억원 이내 지원
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: 지원기간 5년(2+3, 2단계), 연간 5억원 이내 지원

■ 금년도 신규과제부터 수요기반 기업맞춤형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,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·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한 인력 기반 및 체계 구축에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으며, 특히 산학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⊙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KETEP) 조사 · 분석에 따르면 금년도 선정과제 지원을 통해 매년 학부생 및 석 · 박사 과정 인력 3,000여명 이상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, 향후 5년간 2,500여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기대됨

※ 28개 선정과제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조사 · 분석 실시